

고흥군, 정부합동평가 역대 최초 '종합 1위' 쾌거

전남 22개 시군에서 1위 달성
군 행정역량·정책 추진력 입증
재정 인센티브 1억7500만원
“성과 연결하는 행정 펼칠 것”

고흥군이 ‘2025년 정부합동평가(2024년 실적)’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종합 1위 달성은 군 역대 최고 기록으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이 대외적으로 공인된 결과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고흥군은 정량평가 부문에서 △중양부



12일 고흥군이 ‘2025년 정부합동평가(2024년 실적)’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고흥군 제공

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공공보육 이용률 △위기청소년 지원 △지방자치단체 상생경제 활성화 등 총 84개 중 82개 지표를 달성하며, 전남 22개 시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 확립 △지자체 간 연계·협력 △문화 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등 16개 지표 중 15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고흥군은 복지, 경제, 환경, 재정, 농업, 안전 등 대부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균형 잡힌 행정력을 입증했으며, 다수 지표에서 도내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종합 1위 성과로 군은 상사업비 1억5000만원과 포상금 2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전반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군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과 실행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 고흥군의 행정역량과 저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결과로, 고흥군 공직자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성과로 입증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시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23~24일, 성황스포츠클럽 일원

전라남도 광양시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성황스포츠클럽 일원에서 ‘2025년 광양시 안전체험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이상 유관기관이 협업해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지진·화재 대피 교육,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 키보드·교통안전 교육, 신변 안전 인형극 등 총 14개 이상의 실내·외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VR기기, 시뮬레이터,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몰입형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체험도 마련돼 전 연령층의 안전의식 제고와 일상 속 안전사고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차인 23일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이메일(jeon2104@korea.kr)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추진
고흥군, 8월 중 개관 목표

전라남도 고흥군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인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은 고흥읍 일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실내 놀이시설과 드론 체험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복합 육아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869㎡,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이다. 1층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시설을 마련하고, 2층에는 드론 기초교육과 시뮬레이션 조정법을 익힌 후 직접 드론을 조정하며 장애물 피하기와 드론 축구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간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놓여준 어린이에게 동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역할도 할 전망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부모도 함께 쉬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형 키즈카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신규 모집
순천시 창업연당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22일까지 사무공간이 필요한 지역 청년창업가를 위해 창업연당 내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3~8개사를 신규 모집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신청 자격은 청년(18세~45세)인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표자가 순천시민이거나 합격 후 1개월 내 순천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집기, 카페테리아, 회의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61-749-5761)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키위 세균성 꽃썩음병 예방 당부
보성군, 확산 우려...약제 살포

전라남도 보성군이 최근 강우일 증가로 키위 과원에 다습한 환경이 조성돼 ‘세균성 꽃썩음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세균성 꽃썩음병’은 키위 개화기 전후 감염돼 키위의 수분 능력을 떨어뜨리고, 과실의 수확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다.

최근 기온 변화와 강수 증가에 따라 봄철 개화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꽃썩음병이 발생하면 개화 초기 꽃잎과 암술이 갈변되거나 꽃잎이 탈락하고, 중증 감염 시 꽃봉오리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 개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낙화한다. 수분이 이뤄지더라도 열매까지 감염돼 발육이 불량하거나 기형과가 발생한다.

세균성 꽃썩음병은 방제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방풍망, 비가림 시설을 보완해 강풍 및 빗물로 인해 병원균이 꽃봉오리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꽃썩음병 방제약제를 개화 20일 전부터 10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보성=양종수 기자

여수시, 여름철 대비 해수욕장 15곳 사전 점검



여수시 안전관리 조사원이 지난 8일 대포해수욕장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라남도 여수시는 올해도 무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12

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장흥군, 중학생 해외 한국역사문화 탐방 추진

관내 중학교 2학년 219명 전원 대상
항일 독립운동 유적 체험 기회 제공

전라남도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5 해외 한국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장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한국역사문화 탐방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며, 지역 중학교 2학년 전체 219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인 매한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지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특히 장흥군과 자매결연된 중국 해염현 소재 학교와의 공동수업을 추진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탐방은 단순 국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흥의 동학운동과 독립운동 역사와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문림의 향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식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또 올해 탐방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성적, 인성,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해외 역사탐방은 학생들이 선열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탐방도 안전하고 교육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